

역사·인물 축제의 정체성 강화

익산 서동축제, 13종 신규 프로그램 추가 구성... 내달 4일~7일까지 금마서동공원서 개최

익산지역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 2018'이 신규 프로그램 강화와 접근성이 향상돼 운영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의 꿈, 익산의 빛'을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금마서동공원에서 개최되는 '서동축제 2018'에 13종의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축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셔틀버스 노선과 운영 확대에 나서는 한편 신규 프로그램을 확충해 역사·인물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먼저 백제의 물과 신라의 물이 하나 되는 '백제 합수식'을 통해 서동축제 개막을 알린다.

이를 통해 서동과 선화의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구현한다.

축제의 퍼포먼스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용행차퍼레이드는 출정식과 함께 행렬, 무예사범, 포토타임 등이 가미됐다

또 올해는 야간 퍼레이드까지 더해져 축제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축제는 백제로의 시간 여행을 위한 의복체험이 신설돼 기존 운영되던 백제무사체험과 연계, 역사의 이미지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빛을 주제로 한 축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금마서수지와 옥룡천 주변에 서동의 이야기를 등으로 풀이한 '유등'이 설치된다.

시는 또 서동공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 노선을 기존 1개 코스에서 3개 코스로 확대한다.

1코스는 한열읍과 황등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코스는 익산역과 모현동·영등동 일원, 3코스는 터미널과 동산동 방면으로 편성된다.

미륵사지 광장을 축제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의 꿈, 익산의 빛'을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금마서동공원에서 개최되는 '서동축제 2018'에 13종의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역사·인물 축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가했다"면서 "익산의 대표 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해경, 최신 연안구조정 배치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목)는 고군산군도 일원의 해양안전사고를 대비해 최신 연안구조정을 새만금 신지항에 배치했다.

2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안전 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최신형 연안구조정(S-96)을 새만금 파출소에 배치하고 연안 구조정의 세대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연안구조정은 해경이 운용하던 기존 장비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린 통합 모델로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AL) 재질에 최대 2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35km(노트) 이상의 속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 구조정의 최대 장점은 선체 복원(復原)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항해 중 불의의 사고로 선체가 전복될 경우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통풍구가 차단된 뒤 원상대로 바로 돌아오는 일명 '오펙'이 가능이 탑재돼 있다. 또한 최대 3m 파도



에도 정상 운항이 가능하고 크레들(Cradle)과 같은 각종 구조장비가 선체 앞뒤, 좌우에 장착됐으며 최신 항해장비가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박종목 서장은 "최신에 구조장비 배치로 초를 다루는 치열한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장비의 세대교체가 해양구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개

2개월정도 공사 준비기간 거쳐 6월 중 착공 2021년까지 준공 목표

그동안 시공사와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2016년 5차분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온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최근 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본 공사는 2010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공사를 착공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1,629억원 중 현재까지 1,103억원을 확보(국비 809억, 도비 27억, 시비 287억)하여 현재 5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공사측과 의견대립으로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2017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과다준공금 집행에 대해서는 과다준공금 약 71억원은 회수 절차를 진행중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와 영입정지 등 제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는

별도로 시공사와 이견이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하여왔는데 최근 협의점을 도출하여 일단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은 금후 6차분 시행분부터 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에 간섭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공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여부와 순성토 운반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이견 등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등에 공동질의 하여 그 결과에 따른도록 했다.

앞으로 협의의 내용을 진행하면서 6차분 착공은 2개월정도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온 민원문제 즉 도로개설로 인한 성토로 인하여 마을 바닷길이 막혀 자연미를 주변 공기가 정체되는

문제와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교차로 신설과 육교설치 등에 대하여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사업비 약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정현윤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걸쳐 국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방문 설득한 결과 지난해 말 국비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민원해결의 실태를 풀었다.

앞으로 해당도로는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청을 기준으로 본 공사 구간 종점인 연무리까지와 기존 호남국도 익산IC를 경우 연무리까지와 비교 약 9km가 단축되어 물류·시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삼기·낭산 산업단지와 연무리간 직통 노선 개설로 산업단지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5주년 기념 행사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는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켜오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힘을 심어주고자 장례브리핑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 1일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악, 클래식,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이동극, 다원예술 총 5개의 '중합선물세트' 공연을 선보인다.

개관 5주년 기념 GRAND FESTIVAL은 함께 나누자'를 모티브 삼아 지쳐있는 GM군산공장 직원과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연 관람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GRAND FESTIVAL은 28일 국악관 현악을 중심으로 남도민요, 판소리, 모듬북 등이 연주되는 전북도립국악원 '천년의 울림'을 시작으로 5월 1일 세계적인 거장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독주회가 진행되며 3일에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군산 출신 뮤지컬 배우 민우혁, 뮤지컬 신예 유지가 화합의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티켓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nsang.or.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경호 익산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장경호 익산시의원 예비후보(민주평화당 익산시 선거구)의 개소식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이날의 개소식에는 민주평화당 대표인 조배숙의원이 비싼 일정을 뒤로하고 직접 방문하여 축사를 자청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전정희 전의원을 비롯해 장경호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장경호 예비후보는 "비등과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을 비롯한 원도신과 민경강을 접하고있는 서남부지역은 익산의 심장같은 곳으로 이곳이 살아야 익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는 우리동네 경호실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지원사업대상 학교 간담회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3일 지역 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12명과 군산문화초교 구암초교 등 총 20개 학교의 담당교육복지자, 교육복지조정자 11명이 참여했으며 양 기관 서비스 지원내용 공유 및 중복 서비스 파악, 아동의 가정 및 학교생활 등 실태 및 문제점 상호 정보 교류, 통합적·체계적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지난 2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10곳과 영령도래로 종결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효율적 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